

호주 다문화 사회에서의 영어교육 정책

권순희*

<차 례>

- I. 호주 다문화 교육의 사회·문화적 배경
 - 1. 인구정책과 다문화정책
 - 2. 언어정책
 - 3. 학교 교육 제도
- II. 호주 다문화 사회에서의 영어교육 정책
 - 1. 호주 교육과정 개관
 - 2. 호주의 영어 교육과정
 - 3. 제2언어 또는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
 - 4. 교수학습 사례
- III. 호주의 영어교육 정책이 주는 시사점

I. 호주 다문화 교육의 사회·문화적 배경

다문화 사회에서 국어교육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가 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호주의 자국어인 영어교육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어교육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정치, 경제면에서 아시아와 교류가 많은 호주의 영어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11년은 한호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이 연구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전주교육대학교

호주 다문화 교육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인구정책, 다문화정책, 언어 정책, 학교 교육 제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

1. 인구정책과 다문화정책

호주는 현재 200여 개국의 외국인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나라이다. 호주는 이민자로 형성된 국가라고 할 정도로 이민자의 비중이 큰 나라이다. 호주통계국(ABS)이 발표한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총 인구는 2009년 9월 말까지 1년 간 45만 1,900명이 증가하여(연 2.1% 증가) 2,200만 명(세계 54위¹⁾)을 돌파했다. 연 2.1% 증가라는 수치는 이민정책으로 호주 인구가 급증한 것을 나타낸다. 이 인구 증가 속도는 아시아권보다 빠르고 세계 평균의 2배라고 한다. 호주 인구 중에서 1/4이 유럽 및 아시아 출신의 해외출생자이다. 현재 인구의 구성비를 보면, 유럽계 92%, 아시아계 7%, 에보리진 및 기타 1%이다²⁾. 호주는 인구 증가와 관련한 주요 이민정책³⁾에 따라 다문화 정책, 언어교육 정책을 달리해 왔다.

1970년대 이전에는 호주 인구가 영국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계의 이민자로 구성되었으나 1970년대 초반에 백호주의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이후 베트남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의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다. 백호주의 폐지 이후 다문화주의의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호주 사람들은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문화적

1)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as.html>, 2010년 4월 검색

2)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as.html>, 2010년 4월 검색

3) 케빈 러드 전 총리가 “호주 인구를 가급적 많이 늘려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이른바 ‘빅오스트레일리아’ 정책에 대해 2010년 6월 24일 취임한 줄리아 길러드 총리가 수정 방침을 거듭 밝히고 나섰다. 길러드 총리는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며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낡은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며 “시드니는 물론 멜버른 등 주요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인구 및 이민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경제발전에는 인구 증가가 필연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아가 21일 전했다(연합뉴스, “호주 재계, 인구정책 수정방침에 반발”, 2010년 7월 21일자).

다양성이 사회,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호주는 23년간 정권을 잡아온 보수파 정당인 자유당이 1972년 선거에서 패배하고 진보파 정당인 노동당의 휘틀람(Whitlam)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사회 개혁 조치를 단행하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선 것이 1972년 ‘백호주의’ 정책의 폐지와 1973년에 도입한 ‘다문화주의’ 정책이다. 이 정책은 호주 문화의 다양성과 민족적 신원의 다양성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호주 사회 구성원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욱더 ‘정의로운’ 사회로 호주를 재구성하는데 역할을 한 정책이다 (Australian Ethnic Council, 1977; 신성철, 2010 : 7). 1978년 프레이저 연립정부의 갈벌리 보고서에서 호주 다문화주의를 주창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다문화 호주 사회’로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후 1980년대 노동당 정부 집권기에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였고, 1999년 하워드 정부가 ‘A New Agenda for Multicultural Australia’를 공포함으로써 그간의 호주 다문화주의를 재정립하고 현대에 맞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호주식 다문화주의 정책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공고히 하였다. 호주는 2010년 현재까지 다문화주의를 주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관할로 즉, 국가적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이혜영 외, 2010 : 2-3).

2. 언어정책

호주내 언어 자원을 좀더 교육 정책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7년에는 ‘호주국가언어정책(National Policy on Language; Lo Bianco, 1987)’을 문서화한다. 이 문서와 학계의 여러 연구 보고서⁴⁾에 근거하여 1989년부터 1994년까지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호주 주요 대학에 소수민족 언어 프로그램 내지 학과를 개설하고, 연구소 등을 설립한다. 1994년에는 아시아 언어의 진흥이 호주의 국가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초중고교

4) NSW's State Language Policy(MWP1988), Garnaut Report(Australia and Northeast Asia Ascendency; Ross Garnaut, 1989) 등.

에 주요 아시아 4개 언어를 더 많이 도입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한다.

호주에서는 내부인구구성의 변화와 세계로의 진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다문화 교육 정책을 강화하였다. 언어나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에 봉사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개선하고 다양한 집단에 대한 소통과 문헌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영역에서의 다문화주의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훈련을 제공하고, 비교문화적 훈련을 제공하고, 교사교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진흥기금이 문화나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지원되도록 하고, 공공서류를 영어 이외의 언어로 만들며, 기업이나 관공서 홈페이지를 다언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비영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소통을 제공하며, 학교와 행정에서 통역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내 소수민족 언어의 유지 및 계발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였다. 예를 들면,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뉴스 및 영화의 원어 혹은 자막 사용, 소수 민족 밀집 지역 공공 도서관의 원어 도서 비치, 잡지, 영상물 확충, 대입언어 선택과목의 제한 폐지, 초중고등학교 언어과목 도입 확대, 지역사회내에서 운영되는 소수민족 학교(일명, 토요일학교, 교회학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신성철, 2010 : 7).

또한 다양한 언어 문화적 배경 출신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성취하도록 지원한다. 학교 공동체에서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촉진하도록 한다. 모든 학교에서 포용적 교육안을 실시하도록 하며, 학교의 다문화포럼 및 다문화축제에 참석하도록 하며, 유학생의 날이나 몰입프로그램이나 방과후 민족 프로그램이나 아시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있다(김이선 외, 2010).

이후 국제경쟁력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소위 경제합리주의와 사용자 지불 원칙으로 정부 방침이 바뀌고 이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5~6년간 소수 언어와 교육계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다가 2007년 캐빈 루드(Rudd) 정부로 여야 정권이 교체되고 2008년에 NALSSP (National Asian Languages and Studies in Schools Program)라는 새로운 연방 프로젝

트를 발주하여 2011년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12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언어를 대입과목으로 선택하여 공부하고 졸업하는 비율을 현재 10%미만에서 2배로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첫 단계로 아시아 주요 4개 언어⁵⁾의 학교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프로젝트이다(신성철, 2010).

3. 학교 교육 제도

주(State)나 특별구(Territory)에 따라 초등학교 교육이 6년 또는 7년으로 이루어진다. 의무교육은 6세부터 15세(또는 16세)까지이며, 5세 이하의 교육은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5세 때 예비학교에 진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의무 교육인 10학년을 마친 후에는 직업기술 과정을 연수한 후 취업을 하거나 대학진학을 목표로 11학년~12학년에 진학하게 된다. 학기는 1월말 또는 2월 초에 시작하여 12월 중순까지 계속되며, 타스마니아주(3학기제)를 제외하고는 1년 4학기제(1월, 4월, 7월, 10월)로 나뉘어져 있다.

학교마다 유학생 전담 부서 또는 교사가 있어 이민이나 유학으로 낯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학생들을 돕는 제도가 있다. 이민자나 유학생인 경우 초등학교 1~2학년 입학 시 별도의 어학연수가 요구되지 않는 편이지만 학교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어학연수가 필요하면 ESL 과정⁶⁾을 통해 정규학습과 같이 병행하여 영어지도를 받는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 정규과정 시작 이전에 일정 기간의 영

5)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이다.

NALSSP(National Asian Languages and Studies in Schools Program)에 등록된 학생수(2008년 현재)로 보면, 일본어(351,579명), 인도네시아어(191,316명), 중국어(92,931명), 한국어(3,190명) 순이다(Seong-Chul Shin, 2010b : 19).

6) 지역마다 있는데, 시드니에는 15개의 ESL센터가 있다. 정확한 명칭은 Intensive English Centres (IECs)이다.

<http://www.schools.nsw.edu.au/studentsupport/programs/esl.php>

어연수가 요구된다. 중·고등학교 입학 때에는 별도의 어학연수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공립학교들은 자체 어학연수 기관을 가지고 있다. 이민자나 유학생들은 정규 과정에 입학 전 실력에 따라 3개월~12개월까지의 어학연수를 마친 후 정규 과정에 편입된다. 나이가 어릴수록 어학 연수에 필요한 기간은 짧은 편이고,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의 어학연수기간이 필요하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자체 어학 연수기관이 있는 학교의 수가 적은 편이다. 대부분 학교 근처의 사설 어학 연수 기관에서 중·고등학교 준비과정(Secondary Preparation Course)을 이수하게 된다.

호주에서는 학교를 성장을 위한 최고의 장소라는 규정할 만큼 학습자의 성장을 돕는 것에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호주 학교들은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 기술, 자기훈련, 문제해결능력, 자신을 비롯한 타인과 사회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호주 학교는 인성, 지성, 감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학교생활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 발달과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요구와 용도에 맞는 융통성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사 위주의 학습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주며 학생 개개인이 독립심을 기르며 학업하는 습관을 키우도록 유도한다. 학교에는 도서관이 있어서 하이스쿨⁷⁾ 때부터 자료를 찾아가면서 숙제를 하는 습관을 기르게 해준다. 숙제로는 리포트 형식의 프로젝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호주의 학교 교육은 학생들 개개인의 요구와 자질 그리고 관심 분야에 중점을 두며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도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수준별 학습이다.

과목마다 3단계의 레벨이 있어 단계별,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7) 7학년~10학년까지를 주니어 하이스쿨이라고 하고, 11~12학년을 시니어 하이스쿨이라고 한다.

학교 교육이 구성되어 있다. 자신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 지원할 수 있으며 레벨 선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이민자가 많다는 호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준별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의 영어 수준이 다양각색이고 특히 이민 1.5세나 2세대 중에는 모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구사자(bilingualist)가 많다. 지역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이거나 단계별 학습 지도, 수준별 수업 진행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권순희, 2001 : 97).

II. 호주 다문화 사회에서의 영어교육 정책

1. 호주 교육과정 개관

2008년 호주 정부는 호주의 청소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은 호주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또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정 교과 과정이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영어, 수학, 과학, 역사를 필두로 한 K-12국정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로 공약을 제시했다. 그 후로 국제화되어 가는 세계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더욱 잘 준비시키고 교육하기 위해서 일련의 교육 목표와 교육 방법을 설정하겠다고 호주의 모든 교육 장관들(호주에는 6개의 주정부가 있다.)이 공약하기에 이른다. 장관들의 공약은 ‘호주 청소년의 교육 목표에 관한 멜버른 선언(Melbourne Declaration on Educational Goals for Young Australians)’에 집약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와 준주들은 각각의 환경이나 학교 위치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학업을 증진시키고 국가적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가를 놓고 개

별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집중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 호주의 청소년들이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 능력을 함양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며 미래의 정보화된 일터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 양질의 교육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 증가일로에 있는 유동적인 호주인들 즉 전학하는 학생이나 전근하는 교사들이 더욱 일관성 있게 교육에 임하도록 할 것이다.

호주 교과 교육과정은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학습의 질이 무엇인지를 명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호주 교과 교육과정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학습과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호주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가르쳐야 할 학업 범위의 윤곽은 그려져 있지만, 교육 현장인 교실에서 각각의 학생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맥락에서 얼마나 깊게 가르치는 것이 최선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교사에게 맡겨져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호주의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열 가지의 일반 능력과 세 가지의 범 교과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열 가지 일반 능력

- **문식력** : 모든 학습에서 문식력에 대한 지식, 기능, 이해가 사용되고 개발될 필요가 있다. 문식력은 주로 영어에서 담당하지만 다른 교과 학습에서도 이 능력은 개발된다.
- **계산력** : 모든 학습에서 계산력에 대한 지식, 기능, 이해가 사용되고 개발될 필요가 있다. 계산력은 주로 수학에서 담당하지만 다른 교과 학습에서도 이 능력은 개발된다.
- **정보통신 기술** : 정보통신에 대한 이해와 기술은 모든 영역에서 요청된다. 정보 관리에 대한 능력, 기술 사용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풍부한 자료를 평가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타당성, 신뢰성을 평가하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능력이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창의성, 예술성 뿐만아니라 시민적 행동, 정치적 행동에서 필요하다. 개인적, 공적 표현을 하도록 하는 능력은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 **사고능력**: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인지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문제해결력, 결단력, 비판적 사고, 논거를 사용하여 논쟁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사고력은 인지적 활동의 핵심이다.
- **창의성**: 특별한 맥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응용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 선택적 해석을 인식하는 것, 링크를 찾는 것,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긍정적 결과(positive outcome)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 등을 포함한다. 창의성이란 개혁이나 모험적 기획(enterprise)과 관련이 있다. 또 지적인 유연성, 마음을 여는 것, 응용력,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는 준비성과 같은 특성을 요구한다.
- **자기 관리**: 학생들이 자신의 일과 학습에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자기관리 즉 학습을 점검, 조정, 평가하는 능력과 개인적 인격에 관련된 자아정체성을 찾는 능력, 독립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능력, 실패와 성공을 통해 배우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 **팀웍**: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다른 사람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일하고, 공공의 목적에 기여하고, 개인적 역할과 책임, 집단적 역할과 책임을 받아들이고, 개인적 차이와 집단적 차이를 존중하고, 팀 구성원의 장점을 인정하고 사회적 관계를 수립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 **타문화 이해**: 자신의 문화와 다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다른 문화, 다른 배경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해야 한다. 에보리진 문화와

토레스 해협(Torres Strait)의 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문화 국가들과 의사소통하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문화를 존중하도록 교육한다.

- **윤리적 행동** : 도덕적 규칙, 윤리에 맞게 행동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윤리적 행동은 의지, 결단, 사고력, 판단력, 독립적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사회적 적응력** :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모호한 인간 상황을 평가하고, 상황을 변화하도록 성공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인간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자존감을 갖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 요구, 관점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선호적이고 존경적인 상호작용을 증진하고, 갈등을 해결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 활동이나 자치단체적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3가지 범교과 범주

- 호주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
-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와 호주의 관계
- 지속성

이 열 가지 일반 능력과 세 가지 범교과 범주가 각 과목을 가르칠 때 어떻게 기여하며 지속적으로 발달되어 가는지에 호주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타문화 이해’에 대한 일반 능력의 강조와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와 호주의 관계’에 대한 교과 범주 설정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평가원과 유사한 기구인 호주의 ACARA(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에서는 위 일반 능력과 범교과 범주 영역의 지식과 활용 능력, 이해에 대한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된 시리즈는 영어, 수학, 과학, 역사 교과 교육과정의 초안을 검토하는데 이용될 것이고, 교과 교육과정 최종안에는 일반 능력과 범교과 범주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 시리즈는 다른 과목의 교과 교육과

정 저자들이 보조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2. 호주의 영어 교육과정⁸⁾

1) 원리(Rationale)

영어 교육과정은 영어의 언어, 문학, 그리고 문식력 등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개의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들을 설정한 이유는 이 세 분야가 영어 교육과정의 핵심을 이루고, 다른 영역의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호주는 언어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매우 다양성을 띤 나라이다. 호주인들이 다문화적인 삶, 여러 모습의 삶에 참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표준 영어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호주인들은 영어의 숙련도가 높은 가치로 평가되는 세계적 의사소통 환경에 참여해야 한다. 영어 교육과정은 국민 형성과 국제화에 기여한다. 그리고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 사람들만의 지식과 경험의 독특한 표현과 소통 방식을 존중한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호주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 문학적 유산과 현대 문학에 기여하는 가치를 존중한다. 또한 교육과정은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영어 교육과정은 호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이해와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영어를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은 점점 복잡하고 수준 높은 텍스트들을 정교함, 유창함, 목적성을 갖고 듣기, 읽기, 보기, 말하기, 쓰기, 그리고 창작을 할 수 있다. 그들은 학교 내외에서 그들의 지식을 습득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표현한다. 학생들은 영어의 언어로서의 본질과 다양한 의미들의 창작 과정에 대한 명시적인 이해와 감상을 하게 된다. 영어를 공부하

8) ACARA(2010), Australian Curriculum, Draft consultation version1.1.0 (2010년 7월 14 일판).

는 것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관계를 넓고 깊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며, 그들의 본성과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윤리적이고 사려가 깊고 지식이 풍부한 시민, 일꾼이 되는 데 도움을 준다. 학생들이 시니어⁹⁾가 되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 훈련, 직업 등의 진로를 추구하는 데에 대한 준비를 도와준다.

2) 목표(Aims)

국가 차원의 영어 교육과정의 목표는 학생들의 언어, 문학의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며, 문식력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영어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뚜렷한 목표를 두고 있다.

- 학생들이 비언어적 형태의 의사소통과 함께 호주 표준 영어의 구어와 문어 형태의 의사소통을 사용하고 이해하게 한다.
- 호주 표준 영어를 배우게 함으로써 언어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국가를 사회적으로 통합하도록 하며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 영어의 다양성과 표준 영어의 영향력을 존중하게 한다.
- 언어를 즐기고 언어의 진가를 인정하며, 언어가 감정을 유발하고 형상화하고 아이디어를 전달하게 하며, 설득, 즐김, 논쟁을 하게 하는 힘이 있고, 풍요함이 있다는 감각을 개발시킨다.
- 증가일로에 있는 광대한 레파토리인 구어, 문어, 멀티모델 텍스트를 이해, 해석, 비판, 창작하게 한다.
- 광대한 범위의 문식적 텍스트와 인정받는 문학작품에 접근하는 것이다.
- 구어, 문어 형태의 학교교육의 언어 형태와 지식을 마스터하는 것이다.
- 영어 기능을 익히는 평생교육의 즐거움과 평생 학습의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것이다.

9) 우리나라 고등학교 2, 3학년에 해당한다.

3) 주요 전문어

- **영어** : 호주 표준 영어를 일컫는다.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호주의 구어와 문어 영어를 일컫는다. 영어의 유동성과 변화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호주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공통 언어’를 인정한다.
- **문식력** : 문식력은 관습적으로 문맥상에서 효과적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보기, 듣기를 잘하는 것을 일컫는다. 21세기에 문식력의 정의는 더 확장되고 있다. 전통적인 텍스트와 음성 언어, 인쇄, 멀티미디어 등의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까지 확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요구하는 문맥에 적합한 언어 사용을 조정하고 변형할 필요가 있다.
- **모드(modes)** : 듣기, 말하기, 읽기, 보기, 쓰기와 창작(creating) 등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형태를 모드라고 한다.
- **창작** : 창작은 멀티모델 텍스트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쓰기에서 인쇄된 텍스트를 산출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4) 영어 교육과정의 체제

영어 K-10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이해와 사용을 증진시키도록 지지하는 세 영역, 언어와 문학, 그리고 문식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영역의 구성은 또한 10학년 체제의 교육과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준별 유닛과 구조화되어 있다. 또한 11~12학년의 영어교육의 기초가 된다.

- **언어** :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익힌다. 언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시켜 주는지를 배운다. 또 언어로 지식, 태도, 감정, 의견 등을 어떻게 표현하고 교환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어휘, 문장, 텍스트,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 연계성을 포함하여 언어의 사용(usage)과 문법의 패턴에 대해 배운다. 통일성, 구조화된 문장

과 텍스트를 통해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그 능력을 개발한다.

- **문학**: 학생들은 음성언어 상황, 문자언어 상황, 온라인/디지털 상황에서 서사, 시, 산문, 연극, 드라마, 다양한 모델 텍스트와 같은 작품을 해석, 감상, 평가, 창작하는 것을 배운다.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텍스트를 선정한다. 작품은 효과적인 형식이나 문체를 대표할 만하며, 흥미 있고, 예술적 가치가 있으며, 불후의 명작으로 남을 만한 것 위주로 선택한다. 작품은 문화적 맥락 범주에서 도출된 것이어야 한다. 세계적 문학, 호주 문학(국문학), 아시아 지역의 작품, 에보리진(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Torres Strait)의 문학 등을 포함하며 기록되지 않았어도 구전된 자료를 포함한다.
- **문식력**: 영어 사용의 레파토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영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있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목적과 의사소통 상대방의 범주에 따라 계획된 텍스트, 디지털, 인쇄 등 모드 면에서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창작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위 문서에 근거하여 핵심적인 영어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표준 영어의 영향력을 존중하면서 영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다. 표준 영어가 다양한 국가를 사회적으로 통합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언어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언어를 즐기고 언어의 진가를 인정하며, 언어로 감정을 전달하고, 설득, 즐거움, 논쟁을 하게 하는 힘을 기르는 언어 감각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광대한 레파토리인 구어, 문어, 멀티모델 텍스트, 광대한 범위의 문식성 텍스트와 인정받는 문학작품에 접근하여 이해, 해석, 비판, 창작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21세기 문식력 즉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역량 개발까지 확장하고 있다. 타 문화 특히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어 교과와 영역을 언어, 문학, 문식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보기)으로 구성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3. 제2언어 또는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

다양한 민족의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 구성원의 특성 때문에 영어교육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호주 정부에서는 1.5세대 이민자 학생들과 유학생들이 호주에 적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 정책에 각별히 힘쓰고 있다.

호주는 이민자와 외국인을 위한 언어 교육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어학 연수하기에 좋은 국가로 외국인에게 인기가 높다는 것도 언어 교육 제도가 잘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장이나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기보다는 ‘어학 연수’와 ‘관광사업’에 투자를 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에 더 힘을 쏟고 있는 것도 언어 교육 제도를 갖추게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호주의 영어교육은 연령별로 구분을 두어 실시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교육기관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영어권이 아닌 곳에서 이민을 온 사람의 경우 성인과 학생으로 구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화된 기관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한다. 성인의 경우는 시드니 내에 각 지역별로 이민자 어학원이라는 기관에서 영어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학생의 경우는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전에 ‘랭귀지 스쿨¹⁰⁾’이라는 어학원에서 일정기간 영어교육을 받은 후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자격이 부여되고 정규학교로 이관된다. 학생들이 랭귀지 스쿨을 거쳐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에서 수준(레벨)별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영어 도우미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어 도우미 교사는 다른 과목의 과제수행에도 도움을 준다.

이민자가 아니면서 호주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을 위해 우리나라 동사무소와 같은 기관인 카운슬에서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도

10) 1장에서 논의한 ESL과정, Intensive English Centres(IECs)를 의미하며 또 하나의 별칭이다.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하다.

교회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위한 영어 교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민자와 외국인의 문제를 언어정책이라는 관문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통로이며 사고의 통로이기 때문에 언어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사회의 문제를 국가와 민간 기관이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본받을 만하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육 교재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강사들은 다양한 책을 복사하여 사용한다. 특히 카운슬에서 운영하는 영어교실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도 강사로 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영어 강사로 일할 수 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영어교육 기관은 어린 아이를 돌보는 시설과 인원을 갖추고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영어교육 기관인 교회에서도 어린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가 잘 되어 있다. 결혼하고 육아의 부담이 있는 여성들이 영어교실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비영어권 출신의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호주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EFL)의 기초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인 AMEP(Adult Migrant English Program)¹¹⁾가 있다. AMEP는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가르친다.

AMEP는 CSWE(Certificates in Spoken and Written English, 영어의 말하기, 쓰기 증명)를 교육과정으로 사용한다. CSWE는 3단계(Level)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beginners-입문)와 2단계(post beginners-초급), 3단계(intermediate-중급)로, 학습자의 이전의 학습 정도에 기초하여 3가지로 구별한다.

각각의 CSWE 단계에 맞추어서 학습자는 그들의 요구, 흥미, 그리고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배울 수 있다. 채택된 모듈형 접근은 학습자에게 보편적인 기술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특별한 영역, 예를 들

11) <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help-with-english/amep/>

한글자료로는 호주이민성에서 제공한 자료 “AMEP(ADULT MIGRANT ENGLISH PROGRAM)이란?”

<http://blog.naver.com/crux11?Redirect=Log&logNo=60019057954>, 2010년 8월 현재 검색.

면 듣기, 말하기, 읽기를 선택하거나 이 기능 중 여러 개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게 해준다.

AMEP 수업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 탁아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가 제1언어가 아닌 사람으로서, 기능적 영어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은 성인이민자(18세 이상)이다.

다음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들은 수강자격이 있다.

- 새로 온 이민자 또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입국자
- 1991년 7월 이후에 호주에 온 이민자
- 관보에 공시되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임시 거주자
- 1991년 7월 이후에 호주 영주권을 받은 사람

호주에 온 후,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AMEP를 이용하여 최장 510시간에 이르기까지 또는 기능적 영어실력을 달성하게 될 때까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되는 대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

AMEP 수업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은 호주에 온 후,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AMEP 교육기관에 등록하고, 1년 이내에 영어수업을 시작하여 3년 이내에 영어수업을 끝내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면, 직업을 가졌다면, 또는 본인이나 가족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하는 이유로 수업을 늦게 시작할 수도 있다. 수업연기는 5년까지 할 수 있다.

수강 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파트타임 코스와 풀타임 코스가 있는데, 주간, 야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수업을 하며, 정식 학습센터를 비롯해서 지역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이민자 자료센터, 회교 사원, 교회 등 수업장소도 다양하다.

책, 카세트,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하고 AMEP 교사와 전화로 접촉하는 통신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또는 가정교사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자기 집에서 자신의 학습속도에 맞추어 공부하는 가정학습도 있다.

AMEP를 수강하지 못하거나 완료 후 더 영어를 배우고 싶은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LLNP와 WELL이 있다.

- LLNP(The Language, Literacy and Numeracy Program) : 낮은 의사 소통 능력이나 영어 능력 때문에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2년 이상, 최대 800시간까지 언어, 읽고 쓰는 능력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WELL(The Workplace English Language and Literacy) : 고용주가 그들의 노동자들에게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4. 교수학습 사례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강의를 한다. 질문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자유로운 만큼 학생들 자신의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과제에 대해 성숙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자료를 찾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실제 인터뷰를 하는 일이 자연스럽다. 이 때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전문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부 아저씨도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며, 가게 주인도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유학생이나 외국인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수업은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쉬는 시간에도 교사를 찾아와 교사와의 토론과 질문, 대화가 이어진다. 교사 역시도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에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교사는 조력자일 뿐이고 학생 중심으로 토론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토론을 하게 되면 한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토론으로 기억도 많이 남게 되고, 직접 배운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범교과 주제인 환경오염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할 때, 환경오염에 대한 표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한다. 직접 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한다. 책으로 공부하는 것과 체험과 경험 위주로 직접 탐

구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의 차이는 후자가 책으로 공부할 경우보다 더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다. 이 방식의 수업은 학습자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¹²⁾

호주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학생들 개개인의 요구와 자질 그리고 관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과 과정은 지성, 사회성, 예술성, 직업 능력에 관련된 학생들의 잠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반영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보통 한 교사의 지도 아래 그룹별 학습을 하게 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고 독립심을 기르고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키우도록 유도한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용도에 맞는 융통성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각자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는다. 한 학기의 수강 과목은 5~6개 정도이다.

다음은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 유학 정보¹³⁾에 소개되고 있는 유학생들의 반응이다. 유학생들이 호주 교육 체제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다. 이를 범주화하면 호주 교육의 특성을 자발성, 실용성, 다문화 다양성, 소통성이라는 4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1) 자발성

호주에서는 모든 교육기관, 특히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인 학습 습관을 갖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은 개별 혹은 팀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질문, 토론시간에 참여하여 자기 주장을 자신 있게 펼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12) http://www.aci.or.kr/media/echannel_view.php?pk_seq=6&sc_num=6&actEvent=view&page=2&, 2010년 3월 검색.

13) 유학생들의 반응은 다음에서 가져왔으며 해석은 연구자가 한 것임.
<http://www.studyinaustralia.gov.au/sia/ko/SuccessStory/SuccessStory.htm?id=82>, 2010년 3월 검색.

“호주 교육은 학생의 독립심을 키워줍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장점이지요. 덕분에 기업들이 호주 졸업생을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인식하지요.”

(아미르)

가마다는 호주 유학을 통해서 독특한 학습방식을 습득했다고 한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익혀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호주 대학의 교수법과 학습 방식은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호주 대학은 창의성과 독자적인 생각을 장려하고 기대하더군요. 그 덕에 여러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에 비해 유럽이나 아시아 대학 교육은 훨씬 지시적이고 제한적이지요. 처음에는 호주 대학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마다)

“호주에서 공부하는 동안 키운 독립적인 사고방식은 졸업 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문제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식과 생각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한 팀이 되어 일할 수도 있지요.”

(가마다)

2) 실용성

호주의 교육은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다. 학문에 따라 현장 실습이 일반적이며, 교수진과 강사진도 학문과 관련된 산업체의 일원이거나, 학과 프로그램은 전문가 협회의 감수를 받아 졸업과 동시에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제공한다.¹⁴⁾

안젤라는 호주 유학의 장점으로 실용적인 수업방식을 손꼽는다. “강의와 과제가 이론이 녹아있는 실용적인 것들이었어요. 실제 상황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으니깐요.”

(안젤라)

14) http://www.aei.or.kr/study/education_system.php, 2010년 3월 검색.

독일과 호주에서 각각 석사학위를 받은 아르네는 두 나라의 다른 교육 시스템을 경험했다. 그는 호주의 교육방식을 높이 평가한다. 모든 교재와 사례 연구가 실무 위주였고 최신 정보를 담고 있었다.

“처음에는 속도를 따라잡는 것이 힘들었지만 일단 익숙해지니까 더 좋은 시스템이더군요. 착실하게 배우면서 학기 중에 논문을 여러 편 쓰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마지막에 큰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올인해야 됩니다. 2주 동안, 최고 10과목까지 시험 보려면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걸 배울 시간이 없어요. ……배운 것을 제대로 기억하려면 호주 교육 방식이 낫습니다.”

(아르네)

니나는 호주에서 받고 있는 교육의 질에 대단히 흡족해한다. 호주의 “전혀 다른 교육 방식”도 그렇고, 학업 평가가 시험, 구두 발표, 리포트 등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좋다고 한다.

샤히드는 이론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유용한 기법도 얻었다. 이런 것은 방글라데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이라고 샤히드는 표현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이론과 공식은 덜 가르치고(배우고), (지식과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더 많아요.”

(샤히드)

수닐 역시 “저는 이곳에서 학문과 실용성 모두를 강조하는 아주 수준 높은 수업을 받았어요.”라고 말한다.

“수업환경뿐만 아니라 이론 지식과 접목된 실용적인 접근방식 덕분에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며…….”

(수닐)

3) 다문화 다양성

호주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 속에 있다. 다문화 사회라는 특성을 교육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민자 및 유학생을 위한 교육적 배려를 하고 있다.

“공부할 것은 많았는데 교수진이 많이 배려해주셨어요. 늘 우리 문제를 경청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해주셨죠……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건 좋은 거예요. 모든 분야와 업계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컨셉을 필요로 합니다. ……호주가 워낙 문화적으로 다양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해요.”

(베키)

크리스틴은 호주의 양질의 교육과 교육 스타일 덕에 자기계발의 기회를 십분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호주는 다문화사회여서 제가 좀더 오픈마인드가 되도록 가르쳤고 커리어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됐어요. 제 직장이나 강의실에서 여러 다양한 문화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방법을 호주에서 배웠어요.”

(크리스틴)

호주인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방인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편히 지낼 수 있다고 반응하고 있다.

“호주는 유학하기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예요.”

(에츠코)

에츠코는 호주인 친구들과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집도 다른 학생들과 세를 얻어 쉰어하고 있다. 에츠코는 호주에서 다채로운 문화와 전통을 교류하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한다. 에츠코는 또한 학교 측의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대학에서 국제학생들에게 영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교직원들이 아카데미한 작문과 회화를 도와주고 문법, 철자법, 참고문헌에 대해 조언도 해줘요.”

(에즈코)

4) 소통성

호주의 독특한 교수법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소통성이 그것이다. 교사와 학생과의 소통, 학생과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책으로만 모든 걸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이 웹사이트와 이메일 등 훌륭한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교수진 및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며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를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교수진은 프로답게 학생을 도와줍니다.”

(크리스티나)

가마다는 호주 유학의 장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통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뛰어난 영어 소통법을 키울 수 있고,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프레유디는 호주에서 유학하고 현재는 인도네시아 교수로 있다. 호주에서 공부하였던 교수법이 현재는 강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호주 유학 경험이 이곳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호주에서 보고 배운 교수법들을 활용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호주 교수법은 분석, 작문뿐만 아니라 발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이 썩 재미있어요.”

(프레유디)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금,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수업 시간에 토론할 수 있는 토픽에 제한이 없어서 좋다고 즐

은 말한다.

마들렌은 호주의 라이프스타일과 대인관계를 즐기고 있다.

“호주는 다문화적인 나라라서 사람들이 정이 많고 카메룬계 프랑스인인 제가 봤을 때 호주인의 행동, 날씨, 심지어 식물까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교육의 질이 아주 높아요 강사진의 실력이 좋고 모든 학생들을 진지하게 잘 가르쳐줘요.”

(마들렌)

이핑은 학술조사, 에세이 작문, 비평적 사고, 구두발표 등 학문적 기술이 통합된 과정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핑은 호주 교육시스템이 말레이시아와 사뭇 다르다고 생각한다.

“맹목적으로 따라 외우고 정해진 틀에 갇혀 생각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이해를 모색하고 발견하고 있어요.”

(이핑)

이상의 내용은 호주 교육제도를 선진할 목적이 아님을 밝힌다. 다만 학생들이 평가하고 있는 교육의 전반적인 의견을 통해 영어 수업 상황에서의 운영 사례를 간접적으로나마 알고자 하는 시도이다. 영어 수업 상황은 직접 참관하고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구의 여건상 간접적인 관찰로 대신하였음을 밝힌다. 다음은 NSW주의 버우드 초등학교 홈페이지¹⁵⁾에 소개된 상의 종류이다. 어떤 상을 학생들에게 수여하는가를 알아보는 것 또한 수업 상황을 짐작하게 할 수 있어 소개한다.

학교에서 주는 상의 종류

●독서왕(Premier's reading challenge)

유치원부터 9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으로 학생들이 읽기를 좋아하고 문식력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상이다.

15) <http://burwood-p.schools.nsw.edu.au/sws/view/2556.node>, 2010년 5월 1일 검색.

● 호주 원주민 상(NSW Nanga Mai)

에보리진 학생들 중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상으로 대여섯 가지 범주가 있다.

● 철자법 상(Premier's spelling)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이다. 재미있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철자법을 배울 수 있고, 철자법에 대한 재미를 개발하기 위해 구안된 상이다. 일종의 철자법 퀴즈대회이다. 지역 단위, 전국 단위의 대회가 있고 상이 부여된다.

● 말하기 상¹⁶⁾

자신감과 구어 표현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구안된 것으로 토론, 공식적 말하기 등 분야별로 대회가 있으며 각각에 대해 상이 있다. 지역 단위, 전국 단위의 대회가 있고 상이 부여된다.

III. 호주의 영어교육 정책이 주는 시사점

호주는 총체적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을 위해 학교, 지역사회, 국가 교육과정과 실천적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진행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교사와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역사회 주민과 학부모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교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시스템이 그것이다. 이러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교문

16) <http://www.artsunit.nsw.edu.au/programs/speaking-competitions>, 2010년 5월 1일 검색.

화를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문화 언어정책은 각 부서의 협력과 학교, 지역 사회의 협력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 본 논문은 2011. 2. 17. 투고되었으며, 2011. 3. 5. 심사가 시작되어 2011. 3.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권순희(2001), “호주의 자국어 실라버스와 교과서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12집, 국어교육학회.
- 권순희(2006),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 모색-호주의 언어 교육 정책 검토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7집, 국어교육학회, 223-251.
- 김이선 외(2010),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간보고서.
- 신성철(2010), “다문화 한국 사회에서의 한국어와 타언어의 보완성 : 다문화 호주의 경험에서 본 관점”, 2010년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 12차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이재분 외 6인(2010),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지원 사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해영 외(2010), ‘다문화 사회의 언어 정책 사례와 효과조사 연구’ 최종보고회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 다니엘라 탈버리, 케이트 핸더슨, “호주의 문화간 이해교육”,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 편(2003), 국제이해교육의 동향-미국, 일본, 호주, 한국.
- Shin, S-C. (2010a), *Complementarity of Korean and Other Languages in Multicultural Korea : Perspectives from multicultural Australian experience*, a paper presented at the 12th KLACES Conference, Keimyung University, 29 May 2010.
- Shin, S-C. (2010b), *The Current Stat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ustralian Schools*,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Australian Government.
- ACARA(2010), Australian Curriculum, Draft consultation version1.1.0, 2010년 7월판, <http://home.deewr.gov.au>.
- ACARA(2010), Australian Curriculum Information Sheet, 2010년 5월판, <http://home.deewr.gov.au>
- Australian Ethnic Affairs Council(1977), *Australia as a Multicultural Society-Australian Population and Immigration Council on the Green paper*, Immigration Politics and Australia's Population,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 National Curriculum Board, Commonwealth of Australia(2009), *Shape of the Australian Curriculum : English*, 2009년 5월판, <http://home.deewr.gov.au>

▣ 참고 사이트

<http://asiaeducation.edu.au>

<http://eccq.org.au>

<http://eccv.org.au>

<http://www.abs.gov.au>

<http://www.aei.or.kr>

<http://www.artsunit.nsw.edu.au>

<http://www.studyinaustralia.gov.au>

<http://eccnsw.org.au>

<http://education.qld.gov.au>

<http://home.deewr.gov.au>

<http://www.burwood-p.school.nsw.edu.au>

<http://www.education.vic.gov.au>

<http://www.immi.gov.au>

<http://www.schools.nsw.edu.au>

[https : //www.cia.gov](https://www.cia.gov)

<초록>

호주 다문화 사회에서의 영어교육 정책

권순희

호주는 1970년대 초 백호주의 정책 폐지와 다문화주의 정책 도입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민족적 신원의 다양성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호주 다문화 사회에서의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문식력, 계산력, 정보통신 기술, 사고능력, 창의성, 자기 관리, 팀워크, 타문화 이해, 윤리적 행동, 사회적 적응력 등 열 가지 일반 능력과 호주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와 호주의 관계, 지속성 등 세 가지 범교과 범주를 강조하고 있다. 2010년 영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핵심적인 영어 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표준 영어의 영향력을 존중하면서 영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다. 표준 영어가 다양한 국가를 사회적으로 통합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언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언어를 즐기고 언어의 진가를 인정하며, 언어로 감정을 전달하고, 설득, 즐김, 논쟁을 하게 하는 힘을 기르는 언어 감각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광대한 레퍼토리인 구어, 문어, 멀티모달 텍스트, 광대한 범위의 문식성 텍스트와 인정받는 문학작품에 접근하여 이해, 해석, 비판, 창작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21세기 문식력 즉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역량 개발까지 확장하고 있다. 타 문화 특히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어 교과의 영역을 언어, 문학, 문식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보기)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2언어 또는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에서는 이민 학생이나 외국 학생이 랭귀지 스쿨을 거쳐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있고, 학교에서 수준별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영어 도우미 교사 제도가 있다. 성인을 위한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은 AMEP를 비롯하여 LLNP, WELL 등의 제도를 소개하였다. 호주의 영어교육의 교수학습은 자발성, 실용성, 다문화 다양성, 소통성 등 4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핵심어】 호주, 다문화 사회, 영어교육, 교육과정

<Abstract>

Australian English Education Policy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Kwon, Soon-hee

Multicultural society has begun in Australia when Australian government admitted diversities of culture and ethnic races by abolishing White Australia policy and introducing multiculturalism in early 1970s.

The Australian Curriculum emphasizes ten general capabilities of students such as literacy, numerac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thinking skills, creativity, self-management, teamwork, intercultural understanding, ethical behaviour, and social competence. It also stresses three interrelated subject categories, the culture of Aboriginal people and Torres Strait Islanders, Asia and Australia's engagement with Asia, and sustainable patterns of living. Year 2010's Australian English curriculum shows that Australian English education policy respects both the influence of the Standard Australian English and the diversity of English. Australian English education policy reflects that Standard Australian English contributes to the integration of wide ethnic races. It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a sense of language to enjoy and appreciate language, convey feelings, persuade, entertain, and argue. It emphasizes on the ability to understand, interpret, reflect on and create an increasingly broad repertoire of spoken, written, and multimodal texts. It covers the development of capability of using new communications technologies of 21st century literacy. It stresses the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especially Asian cultures. Australian English subject categories is composed of language, literature, and

literacy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and seeing).

For English education as a second language, immigrants and foreign students enter school after finishing language school, receive English education in compliance with their English levels, and have help from assistant English teachers. As the English education systems for adult, AMEP, LLNP, and WELL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Teaching-learning method for English education in Australia can be categorized as four principles such as spontaneity, practicality, multicultural divers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Key words】 Australia, Multiculture Society, English Education, National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